

벚꽃 삼매경 빠진 천년고찰... 번뇌는 저만치

봄꽃이 아름다운 사찰

③ 경주 기림사

경주 함월산 기슭에 있는 기림사(祇林寺)는 불국사보다 앞서 지어진 가람이다. 한때는 불국사를 말사로 거느릴 정도의 대찰이었다. 기림사는 천축국(인도)에서 온 광유성인이 창건해 임정사(林井寺)라고 불렀다. 그 후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원효대사가 사찰을 크게 확장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 때에 이미 대적광전을 건립해 삼신여래를 봉안했고, 동쪽에는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을 건립했다. 그리고 서쪽에는 석조여래상을 모신 응진전을, 동쪽에는 삼층목탑과 정광여래사리각을, 남쪽에는 무량수전과 진남루를 건립했다. 그러나 사리각은 없어지고 삼층목탑은 그터만 남아있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안거를 보내신 기원정사의 숲인 '기림'에서 불여진 경주 함월산 자락에 위치한 기림사.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전각을 하얗게 뒤덮고 있다.



임진왜란때 승병지휘소였던 진남루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205호인 삼층석탑



김시습 선생의 영정을 모신 매월당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왕문을 지나면 반기는 것은 일자형으로 길게 좌우를 편 진남루다. 임진왜란 때 승병 지휘소로 사용되었던 진남루는 다른 절집의 강당처럼 거대하거나 높지 않다. 진남루 벽면은 외장 역할을 하는 나무문이 정갈한 모습으로 아무렇게 닫혀 있다. 장방형 문짝이 빛는 절묘한 조화가 조각보를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벽면이다. 진남루는 경남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자방루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건물인 셈이다.

광유성인 창건, 643년 원효대사가 재건 '오중수' 유명... 화정수·명안수만 남아 석축아래는 옛 전각, 윗벽에는 새 전각 전통학림운영, 차문화 복원 사업 등 계획

진남루를 등지고 서 있을 때 정면은 대적광전, 왼편은 응진전, 오른편은 약사전이다. 대적광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조선 후기 법당으로 보물 제 833호다. 대적광전은 배면 일부만 제외하고는 모두 장방형 막돌 1벌대 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을 적당히 방형으로 다듬은 초석과 주좌와 고매이까지 짜여진 조석들을 혼용해 약한 율림을 한 원기둥을 세운 대표 석 건물이다. 어간과 협간의 공간포는 2구(具)씩이고 축간의 공간포는 1구이다. 규모는 앞면 5칸, 옆면 3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이다. 공포의

짜임은 의 3출목 내 4출목으로 주두와 소로의 굽면은 사면이고 굽받침은 없다. 정면 각 주간에는 소슬 빗살꽃살창을 달았다. 어간과 협간은 4짝씩이고 측면은 3짝씩인데, 어간과 협간의 모양은 서로 같지만 이들은 축간의 모양과는 다르다. 좌우 측면 전면쪽 축간에는 두짝의 여단이 꽃살창호를 달았다. 후면의 어간과 두 측면에는 두짝 판문을 달았다. 대적광전은 공포에 조각을 많이 넣어 17세기 건축 흐름을 알 수 있고, 특히 수리를 할 때 옛 모습을 손상시키지 않아 중요한 건축사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법당 안에는 흙으로 빛은 3m 이상 높이의 커다란 삼존불이 봉안돼 있다. 문득 올려다보면 아득해 지다가 정신이 번쩍 들 법하다. 조선 인조 7년(1629)에 조성된 것들로 보물 제958호다. 한가운데가 지혜의 광대무변함을 상징하는 본존불(本尊佛) 비로자나불이다. 왼편은 노사나불, 오른편은 석가모니불이다. 무인처럼 주위를 압도한다.

흥미로운 것은 비로자나불의 수인(手印)이다. 수인은 수행자의 다짐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말한다. 예를들면 석굴암 본존불의 수인은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다. 우리나라 불상들은 대체로 이 수인을 하고 있다. 오른발을 왼쪽 넓적다리 위에 얹은 길상좌(吉祥坐:결가부좌의 하나) 상태에서 왼손을 배꼽 앞에 가만히 놓고 오른발을 짚은 오른손의 검지로 땅을 가리키는 자세다. 석가모니는 득도하기 전에 마왕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으나 땅의 신을 이용해 마왕을 물리쳤다. 항마촉지인은 '땅을 가리켜 마왕을 항복시킨 손 모양'이란 뜻이다.

기림사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의 수인은 지권인(智拳印)이다. 지권인은 왼손을 가슴까지 올려서 검지를 편 다음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를 가만히 감싸잡 (혹은 머금고) 손 모양을 말한다. 비로자나불은 모두

이 수인을 하고 있다. 이때 오른손은 불계(佛界), 왼손은 중생계(衆生界)를 뜻한다. 그러니까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은 지금 부처와 중생이 들어 아니고 아니며, 미혹함과 깨달음도 본래 하나라는 설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기림사는 2m가 넘는 석축으로 아랫벽과 윗벽이 구분되어 있다. 아랫벽에는 대적광전을 비롯한 옛 전각들이 모여 있고, 윗벽에는 삼천불전을 비롯한 새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진남루와 대적광전 등 무채색의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다양한 모양의 담배락이다. 차곡차곡 머리를 만 한 돌로 쌓은 돌담과, 기왓장을 포개 무늬를 넣은 흙담 등이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을 번듯한다.

기림사는 보물들이 많은 사찰이다. 사찰 입구의 성보박물관서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림사 보물의 중심은 박물관 한가운데 모셔져 있는 건칠보살좌상이다. 1501년(연산 7년)에 만들어진, 진흙으로 만든 속에 삼매를 감고 종이를 발라 그 위에 옷칠을 하고 다시 금을 입힌 불상이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얼굴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몸은 늘씬하게 잘 빼졌다. 옷 주름도 여성의 솔이 흘러 내리듯 뇌쇄적으로 몸을 감싼 파격적인 디자인이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꽃미남 같은 불상이다.

박물관에는 삼존불에서 나온 복장유물과 지옥, 열라대왕을 묘사한 평화 등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옆 산자락에는 김시습의 영정을 모신 사당도 있다. 이 영당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 선생(1435~1493)의 영정을 모신 곳이다. 본래의 영당은 현종 11년(1670) 경주부사 민주면이 선생의 뜻을 추모하기 위해 선생이 은거한 용장사 경내에 오산사를 지었으나 고종 5년(1868)에 훼손됐다.

고종 15년(1878) 이를 애석하게 여긴 경주 유림이

경주부윤 민창식에게 청해 기림사 경내에 다시 지었으나 그 후 퇴락했다. 이후 1998년 경주시서 현재의 위치에 중건했으며, 매년 음력 2월 중경에 향사를 봉행한다.

김시습 선생은 신동으로 장래가 촉망됐으나 단종 3년(1455)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에 뜻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했으며, 경주 용장사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저술했다.

기림사엔 최근 불국사 승가대학장인 덕민 스님이 4월 5일 주지로 부임해 변혁을 꾀하고 있다. 부주지 운암 스님은 "주지 스님이 새로 오셔서 두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는 승가대학원 성격의 학림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통 교육방법 그대로 학인을 교육시켜 전통학맥을 다시 부흥시킬 생각"이라며 "또 하나는 기림사가 오래된 차문화유적 자임을 다시 재현해 내는 것이다. 사찰 뒤편에는 차밭이 1만여평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해 사찰 전통 차문화를 복원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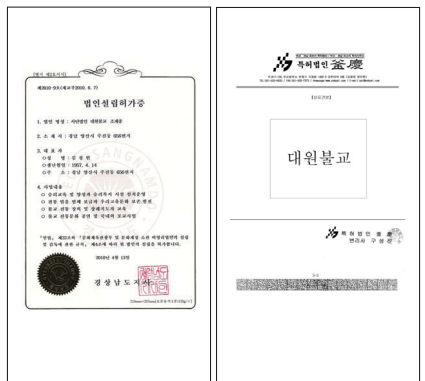
경주 기림사=하성미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종 안내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무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 대한불교조계종정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승정원	중앙종회	호법원	감찰원	사정원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위원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겸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장 석원정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장 석범현	사정원장 석범경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장 석실산	포교원장 석해광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장 석철오
	교구총무원				
	구미총무원장 석해광	전북총무원장 석실산	미산총무원장 석범경	대전총무원장 석범오	
	진남총무원장 석범진	진주총무원장 석덕오	강서총무원장 석해륜		
총무원		부산 제2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총무원장(직) 010-3565-2462			
사무총장 석혜주		해광사(총무소) 051)505-2461			
부원장 석용암		해광사(팩스) 051)516-2461			
총무부장 석운오		부산지 금정구 장전동 614-6			
교무부장 석성오		부산지부 제2 총무원 해광사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범원					
정보부장 석범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영오					
바우회회장 석도현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